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홍루몽

HONG
LOU
MENG

조설근 고악저
안의운 김광렬 역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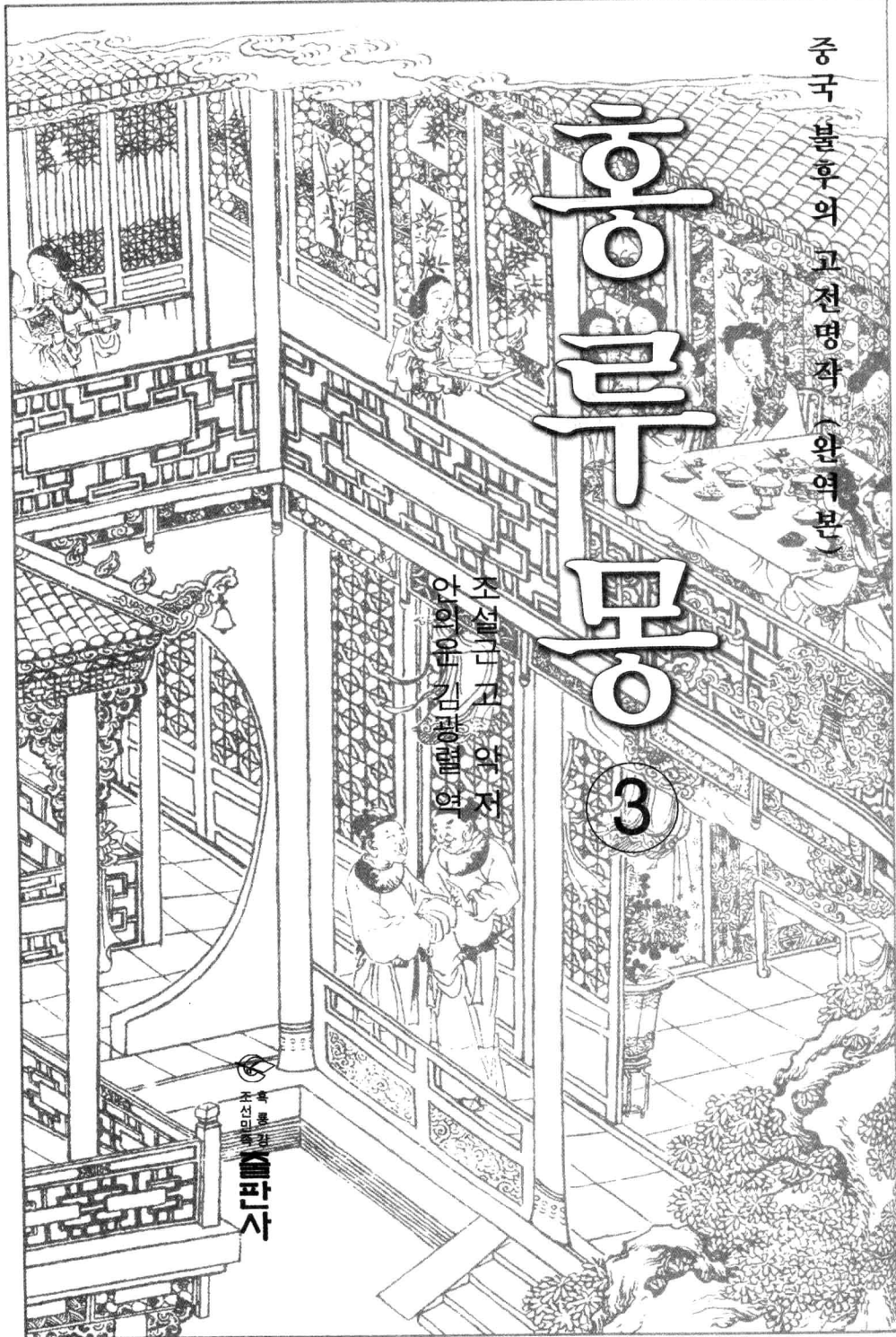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홍루몽

3

조설진 고안
안익환 김희열 역

홍루몽
조설진
완역본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红楼梦. 3: 朝鲜文 / (清) 曹雪芹, (清) 高鹗著;
安义运, 金光烈译.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4

ISBN 978-7-5389-1567-9

I. 红… II. ①曹…②高…③安…④金… III. 章回小说—
中国—清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2.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9) 第 049198 号

本书根据人民文学出版社 2000 年 5 月
第 1 版翻译出版

차 례

- 제 61 회 쥐 잡다 그릇 깨칠라 보옥이 장물을 숨겨주고
원죄를 판결함에 평아가 권력을 행사하다 /1
- 제 62 회 사상운은 술에 취해 함박꽃 요를 깔고 자고
진향릉은 정에 못 이겨 석류치마를 바꿔입다 /17
- 제 63 회 이흥님을 축하하여 아가씨들 밤잔치 차리고
금단 먹고 죽어 부인이 홀로 초상을 치르다 /50
- 제 64 회 정숙한 아가씨 슬픔에 잠겨 “오미음”시를 짓고
방탕한 사나이 색정에 빠져 구룡패를 던져주다 /80
- 제 65 회 고량자제 안해 몰래 우이저에게 장가 들고
우삼저 류이랑에게 시집갈 생각을 다지다 /104
- 제 66 회 다정한 아가씨 사랑의 치욕으로 저승길을 떠나고
쌀쌀한 이랑은 마음이 얼어 불문에 들어서다 /122
- 제 67 회 대옥은 토산물을 받고 고향생각에 잠기고
비밀일을 들은 회봉은 가동을 심문하다 /135
- 제 68 회 불쌍한 우이저는 대관원에 얼리워 들어가고
강샘한 왕회봉은 녕국부를 크게 뒤흔들어놓다 /162
- 제 69 회 회봉이 잔피를 부려 남의 칼로 살인을 하고
이저는 때를 깨닫고 금을 먹고 자결하다 /182
- 제 70 회 림대옥은 다시금 도화시사를 무어보고
사상운은 우연히 버들꽃사를 지어보다 /202
- 제 71 회 협곡이 있는 사람은 기회 노려 양값음하고
원양녀는 우연히 한쌍의 원앙을 만나다 /221
- 제 72 회 왕회봉은 억척을 부려 병을 말하기 부끄리고
래왕덕은 세력을 믿고 강제로 혼인을 하다 /243

- 제 73 회 어리석은 계집애 수춘낭을 잘못 짓고
나약한 아가씨 루금봉을 묻지 않다 /261
- 제 74 회 혈뜰는 말에 속히워 대관원을 수색하고
까다로운 아가씨 녕국부와 발길을 끊다 /280
- 제 75 회 밤잔치에 이상한 조짐으로 슬픈 소리 울리고
추석날 달구경에 새글귀를 지어 칭찬을 받다 /307
- 제 76 회 철벽당에서 피리소리에 처량함을 느끼고
요정관에서 시를 지으며 적막함을 슬퍼하다 /331
- 제 77 회 어여쁜 시녀는 억울한 루명에 요절을 하고
아름다운 배우 정을 끊어 수월암의 중이 되다 /354
- 제 78 회 늙은 학사 한가로이 계획사를 모으고
치정 깊은 공자는 부용뢰를 짓다 /379
- 제 79 회 설문룡은 강동의 사자를 맞아들여 후회하고
가영춘은 중산의 승냥이에게 시집을 가다 /407
- 제 80 회 향릉은 억울하게 남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왕도사는 엉터리로 강샘약처방을 떼주다 /419
- 제 81 회 남시질로 네 아가씨 운수를 점쳐보고
아버지의 훈계로 두번째로 가숙에 들어가다 /436
- 제 82 회 늙은 선비는 강술로 완심을 깨우쳐주고
병든 대옥은 악몽에서 스스로 놀라 깨다 /453
- 제 83 회 궁중에 들어가 귀비의 문병을 하고
가정싸움에 설보채는 분을 참아내다 /474
- 제 84 회 학문을 검열받은 보옥은 혼사말에 오르고
문병을 갔다가 가환은 또다시 원형을 사다 /494
- 제 85 회 가존주는 벼슬이 올라 랑중으로 임명되고
설문기는 살인죄로 류방형을 판결받다 /513
- 제 86 회 현령은 죄물에 눈이 멀어 판결서를 고치고
정취 깊은 숙녀는 한가롭게 악부를 해설하다 /533

- 제 87 회** 가을소리에 거문고 타며 지난날을 슬퍼하고
조용히 참선을 하다가 마귀에게 맞다들다 /550
- 제 88 회** 보옥은 가족들앞에서 고아를 칭찬해주고
가진은 가법을 지켜 노복을 매질하다 /568
- 제 89 회** 사람은 죽었으되 물건은 남아 도련님 시를 짓고
의심이 병이 되어 대옥은 끼니를 굶다 /584
- 제 90 회** 가난한 아가씨 솜옷 잃고 약료를 참아내고
나젊은 도련님 과품을 받고 억측에 놀라다 /600

제 61 회

쥐 잡다 그릇 깨칠라 보옥이 장물을 숨겨주고
원죄를 판결함에 평아가 권력을 행사하다

“요 잔내비 같은 녀석아! 너의 아줌마가 정부를 찾아갔다고 네겐 아저씨 한분이 더 생긴게 되잖니?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단 말이나? 이 아줌마가 요강뚜껑 같은 네 대가리의 노랑털을 뽑아주기전에 어서 문이나 열고 길을 띄워라!”

류서방댁이 이런 소리를 했지만 소동은 그냥 문을 열어주지 않고 롱지거리만 했다.

“아주머니, 들어가시거든 어떻게든지 살구를 좀 훔쳐내다주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있을테니.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앞으로 밤중에 술이나 기름 같은걸 사러 가실 때도 문을 안 열어드릴테예요. 문을 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못 들은체하고 가만히 있을거란 말예요.”

류서방댁은 웃으면서 소동을 향해 침을 탁 뱉어주었다.

“이런 정신나간 녀석 좀 보아!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줄 아느냐. 올핸 구역별로 할멈들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했기때문에 할멈들의 단속이 여간 심하질 않아. 누가 나무밑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려계새처럼 두눈을 부릅뜨고 살피고있단 말이다. 그러니 어떻게 손을 댈수가 있겠니? 어제도 내가 오얏나무밑을 지나다가 꿀벌이란 놈이 얼굴앞을 스쳐지나기에 손을 들어 쫓았더니만 너의 외숙모인 호할멈은 멀리서 똑똑히 보지도 못하고는 내가 오얏을 훔치는줄로만 여기고 목구멍이 찢어지게 소리를 지르잖겠니. 뭐 아직 불공도 드리지 않았다는니 로마님과 마님이 집에 계시지 않기때문에 아직 그분들에게 따드리지도

못했다느니 그리고 이제 웃어른들에게 먼저 대접을 하고난 다음이면 아주머니들에게도 한몫씩 차례지게 된다는니 하고 군소릴 늘어놓더란 말야. 마치 누가 오얏을 못 먹어 게걸이라도 든것처럼 말야. 그래서 나도 곱지 않은 말로 한바탕 면박을 주었어. 그런데 넌 그런 일을 말아보는 너의 외숙모며 이모며 하는 친척들이 두셋이나 있어가지고도 왜 그 사람들보고는 달라지 못하고 나한테 이 성화냐? 이권 광안에 있는 쥐가 까마귀보고 량식 꺾달라는 격이로구나. 그래 뒤주를 지키고있는 놈에겐 쌀이 없고 떠돌아다니는자에겐 있더라 말이나?”

“아이구, 없으면 그만이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가 그리도 많아요. 아주머닌 앞으로 저의 신센 지지 않으실 셈인가요? 일없어요. 이제 누나(오아)가 좋은 자리를 얻게 되면 제손을 빌릴 때가 많을거예요. 그때 심부름만 잘해주면 그런것쯤은 문제가 없어요.”

“요 감쪽한 녀석 좀 보아! 또 무슨 못된 궁리를 하고있는거냐? 네 누나한테 무슨 좋은 자리가 있단 말이나?”

“흥! 저를 속이지 말아요. 전 벌써 다 알고있어요. 뭐 아주머니네만 안에 줄이 있고 저희들은 줄이 없는줄 아세요? 제가 여기서 심부름을 하고있기는 하지만 저안에 지체있는 자매가 뒤 사람은 잘 있단 말예요. 그렇기때문에 어떤 일도 저희들을 속일수는 없어요.”

이렇게 주머니받거니 하고있을 때 문안에서 한 할멈의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요녀석들아, 어서 류아주머니를 부르러 가지 못하겠니? 그러다가 식사가 늦어질라.”

그 소리에 류서방댁은 소동과의 통담을 집어치우고 급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바빠하지 말아요. 내가 들어가는중이니.”

류서방댁이 이렇게 말하면서 주방안에 들어서보니 주방엔 몇몇 동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수 없어서 그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있는 참이었다.

류서방댁은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 오안 어딜 갔어요?”

“방금전에 차 끓이는 방으로 자매들을 찾아갔어요.”

그 대답을 들은 류서방댁은 곧 복령분을 한쪽에 치워놓고 각 방에 따라 료리를 분배했다.

이때 영춘의 방에 있는 어린시녀 려화가 와서 사기의 말을 전했다.

“사기언니가 닭알을 말랑말랑하게 한그릇 찌달라고 했어요.”

“참, 존귀하신분도 다 있네! 어떻게 된 셈인지 올해는 닭알이 귀해서 한개에 열문을 주고도 구할수가 없는 형편이야. 어제도 우에서 친척집에 죽살을 보내신다기에 물건 사들이는 사람들이 사오십명이나 나가서 겨우 이천개를 모아들였어. 그런걸 내가 어디 가서 구해온단 말이나? 그러니 닭알은 요다음에 먹으라고 해라.”

“요전엔 두부를 달랬더니 쉼 두부를 주어서 나더러 꾸중을 듣게 하더니만 오늘은 또 닭알을 달래도 없다네요. 그게 무에 그리 대단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닭알이 없다는 소린 난 믿어지지 않아요. 어디 내가 한번 뒤져봐야지!”

려화는 이렇게 종알거리면서 남새상자앞으로 다가가 뚜껑을 열어 보았다. 아니나다를까 상자안에는 닭알이 여라문개 들어있었다.

“이건 닭알이 아니고 뭐예요? 정말 아주머니도 너무하시군요! 우린 주인의것을 먹고 아주머닌 우리에게 정해진 몫을 나눠주는것뿐인데 왜 그렇게 가슴아파하시는거예요? 이 닭알이 뭐 아주머니가 낳은 알이기라도 한가요? 왜 남이 먹을가봐 그렇게 벌벌 떠는거예요?”

그 소리에 류서방댁은 급히 일손을 놓고 려화에게 다가들며 훈계를 했다.

“왜 이렇게 함부로 주둥일 놀리는거야! 네 에미가 알을 낳으니 다른 사람도 알을 낳는줄 아느냐? 몇알 밖에 안되는 이걸 급할 때 쓸 거란 말이다. 그런걸 너희들이 죄다 먹어버렸다가 우에서 급히 가져오라실적엔 무얼 갖다바친단 말이나? 고대광실에 편안히 들어앉아 물이 오면 손이나 내밀고 밥이 오면 입이나 벌리는 너희들은 닭알을 그저 레사로운 물건으로 여기고있지만 바깥세상의 시세를 알거나 하니? 닭알은 고사하고 어떤 해엔 풀뿌리조차 이어대기 힘들 때가 있단 말이다. 그러니 그 아가씨들한테 내 말을 전하란 말야. 매일같이 쌀밥에 닭고기에 계사니고기면 훌륭하니까 그만 좀 참고있으라고 말야. 그런 고량진미가 입에 물린다고 날마다 새로운걸 생각해내선 닭알이다, 두부다, 밀가루기름튀기다, 무우장아찌볶음이다 하고 입맛을 바꾸려고만 드니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들어주겠어? 한군데서 한가지씩만 청해온대도 다합하면 여라문가지가 된단 말야. 이러다간 원주인님들

의 시중은 그만두고 너희들 두번째주인들의 시중만 들어야겠구나!”

그러자련화는 얼굴이 빨개가지고 소리를 질렀다.

“누가 날마다 무얼 해달랬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늘어놓는거예요? 아주머닐 여기에 들어오게 한건 아가씨들의 편의를 위해서지 달래 그런건줄 아세요? 그런데 요전에 춘연이가 와서 청문언니가 썩갯을 먹고 싶어한다고 했을적엔 왜 그렇게 네네 하고 닭고기를 넣고 볶을까요 아니면 돼지고기를 넣고 볶을까요 하고 서둘렀어요? 그래서 춘연이가 고기불인 싫기때문에 밀가루기름튀기나 넣고 볶아달랬다면 기름은 조금만 두라니까 아주머닌 또 내 이 정신 좀 봐 하면서 급히 손을 씻고는 볶아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꼬리는 저어가면서 손수 갖다 바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앞에서 본패를 보이려는거예요?”

“나무아미타불! 여기 이 사람네도 보고있지만 전번것은 그만두고 지난해 이 주방이 설 때부터 어느 방에서든지 림시로 무얼 한두가지씩 청할 땐 청하는 사람이 그만한 돈을 내서는 그때그때 따로 사다가 만들고있단 말야. 돈을 받고 안 받는건 별문제로 치더라도 그러는게 우선 듣기도 좋단 말야. 그래서 남들은 내가 따로 아가씨들의 식사를 맡아보니 일도 수월하고 부스럭돈도 제법 들어올것이라고 말하고있지만 따지고보면 정말 구역질이 날 지경이야. 아가씨들과 그밀에 있는 시녀아가씨들까지 합치면 사오십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닭이 두 마리, 계사니가 두 마리, 고기가 여라문근씩 드는걸 한판의 찬값을 가지고야 어디다 쥐여바르겠어? 너희들도 한번 셈을 해보란 말야. 하루 두끼의 밥값도 될가말가 한데 이 사람이 이걸 요구하고 저 사람이 저걸 청하면서 사온건 안 먹고 새로운걸 사오라고 하니 어떻게 당해내겠어? 이럴바엔 차라리 마님께 여쭙어서 한 사람앞의 식대를 얼마쯤씩 더 달래야겠어. 그래서 큰 주방에서 로마님의 식사를 마련하는것처럼 세상에 있는 료리의 이름을 있는대로 다 적어놓고 매일 차례로 해먹은 다음 월말에 가서 결산을 보는편이 나을것 같아. 요전날 셋째아가씨(탐춘)와 보채아가씨께서는 기름에 볶은 구기자외 순을 자시고싶어하실 때도 시녀아가씨를 시켜 돈 오백문을 보내오시잖았겠어. 그래서 난 웃으면서 말을 했지.

‘두분 아가씨의 배가 미룩불의 배만 하다 하시더라도 오백문어치의 료리를 무슨 수로 다 자시겠어요? 이삼십문이면 넉넉하니 그만한

것쯤은 돈을 더 안 주셔도 만들어드릴수가 있어요.’

그 돈을 도로 가져다드리니까 아가씨들은 기어코 받지 않고 나더러 술이라도 사먹으라는게 아니시겠어?

‘지금은 주방이 안에 있기때문에 여러 안에 있는 애들이 제 마음대로 와서 뒤지고 먹는 일도 없을수 없지 않아. 조금 한순가락, 간장 한종지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것 하나 돈 안들이고 생긴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안 주면 체면에 딱하고 주자니 또 그것을 벌충할데가 없을 거란 말야. 그러니 이 돈으로 평소에 그들이 축내는 구멍을 틀어막도록 해요.’

이 얼마나 아래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아주시는 아가씨들인가 말야!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그분들을 위해 넘볼을 했었어. 그런데 할 일 없는 작은집 조마님은 그 소리를 듣더니 공연히 화를 내면서 내가 마치 무슨 단물이라도 빨아먹는것처럼 말을 하고있단 말야. 그러면서 열흘이 멀다하게 어린시녀를 보내와선 이걸 내라 저걸 달라 하고 성화를 대고있잖아. 나 원 기가 막혀서! 그런데 너희들까지 그것을 법처럼 여기고는 이것을 내라 저것을 내라 하고있으니 내가 어디 돈이 있어 그 구멍을 메꾸어대겠니?”

류서방댁이 이렇게 한창 꾸념을 늘어놓고있는데 사기는 또 심부름군을 보내와 런화를 재촉했다.

“넌 여기서 뒹여졌더냐? 왜 여태 돌아가지 않고있어?”

런화는 그만 부아가 나서 돌아가버렸다. 그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면서 갔다온 일을 사기에게 이야기했다.

그 소리에 성이 머리끝까지 치민 사기는 영춘의 식사시중을 끝마치기가 무섭게 어린시녀들을 이끌고 주방으로 달려왔다.

여러 아낙네들은 밥을 먹고있다가 사기가 푸르딩딩해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다급히 일어나 웃으면서 자리를 권했다. 하지만 사기는 알은체도 않고 들어서자바람으로 어린시녀들에게 호령을 했다.

“상자나 찬장안에 있는 찬거리들은 있는대로 다 뒤져서 개한테 던져줘. 아무도 먹을알이 없게 말야.”

어린시녀들은 그 소리를 기다렸던듯 우르르 달려들어 닥치는대로 뒤져서는 내동댕이쳐버렸다. 그것을 보고 아낙네들은 황급히 어린시녀들을 말리는 한편 사기에게 빌었다.

“아가씨, 어린아이들의 말을 끝이듣지 마세요. 류아주머니가 머리

가 몇개나 있다고 감히 아가씨한테 죄스러운 일을 하겠어요? 아까는 정말 닭알이 없어서 못해드리겠다고 한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방법을 대서 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했더니 이 아주머니도 벌써 자기의 생각을 고치고 급히 닭알을 찌고있는중이예요. 믿어지지 않거든 저 불우를 좀 보세요.”

사기는 여러 사람들이 좋은 말로 권하는바람에 차차 성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린시녀들도 물건을 내던지다 말고 물러섰다. 그러나 사기는 한바탕 더 욕설을 퍼붓고나서야 사람들의 만류에 못 이겨 돌아가버렸다.

류서방댁은 분풀이할데가 없어 사발이며 쟁반들을 마구 들었다놓았다하면서 두덜거렸다. 그리고나서는 어찌는수없이 닭알 한그릇을 찌서 보내주었다.

사기는 그것을 받기가 무섭게 땅바닥에다 내동댕이쳐버렸다. 그러나 심부름 갔던 아낙네는 또 싸움이 벌어질가봐 돌아와서도 그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난 오아는 그것을 방관에게 좀 나누어주고싶은 생각이 들어 종이에다 반쯤 덜어서 싸가지고는 황혼이 깃들무렵 인적이 드문 때를 타서 손수 꽃서리와 버드나무사이에 몸을 숨기면서 방관을 찾아갔다. 다행히 아무의 눈에도 띄우지 않고 곧바로 이흥원문 앞까지 왔지만 성큼 발을 들여놓을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래서 매괴 꽃무더기앞에 서서 멀리 바라보며 차 한잔 마실 동안쯤 기다리고있으려니까 마침 춘연이가 나오고있었다. 오아는 급히 다가가며 춘연을 불렀다. 춘연은 누구인지 몰라서 가만히 서있다가 눈앞에 다가온것을 보고서야 그것이 오아임을 알아보았다.

“언니였군요. 웬 일이에요?”

“방관일 좀 불러주었으면 좋겠어. 난 그 애와 좀 할 말이 있어.”

“언니 너무 조급해하시느군요. 이제 한 열흘쯤 더 기다리면 될텐데 방관언니를 찾아선 뭘 해요? 그 언니 방금 저 앞채로 심부름을 갔는데 한참 있어야 올거예요. 기다리기 지루하거든 무슨 요긴한 일인지 저한테 알려줘요. 그 언니가 돌아오게 되면 제가 전해드릴테니. 그때까지 기다리고있노라면 아마도 대문이 닫히게 될거예요.”

오아는 하느수없이 복령분을 춘연에게 건네주면서 어떻게 먹고 몸에 어떻게 좋다는것을 낱낱이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몇

붙였다.

“이건 내게 조금 생긴걸 그 애한테 주는거야. 그럼 수고스러운대로 그 애한테 좀 전해줘.”

말을 마친 오아는 이내 춘연이와 헤어졌다. 그가 료서일대에 이르렀을 때 별안간 저쪽으로부터 림지효의 안해가 몇몇 할멈들을 데리고 다가왔다. 미처 숨을 새가 없게 된 그는 아예 마주다가 인사를 했다.

림지효의 안해는 그의 인사를 받으면서 물었다.

“넌 앓는다더니 어떻게 여길 다 왔니?”

오아는 웃음을 띠우며 공손히 대답했다.

“요샌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이안에 들어와 산보를 하다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이흥원에 물건을 갖다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그 말은 틀리는걸. 너의 어머니가 나가는걸 보고서 내가 방금전에 문을 닫아걸었는데. 너의 어머니가 너한테 심부름을 시켰다면 왜 나를 보고 네가 여기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겠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가면서 나더러 문을 닫으라고까지 하던데. 그러니 이상하지 않아? 아무래도 네가 거짓말을 하는것 같구나.”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게 된 오아는 떠듬거리며 변명을 했다.

“원래는 어머니가 아침에 가져가라고 하신걸 제가 그만 잊고있다가 이제야 가져가게 된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벌써 나간줄로 알고 할머니한테 말씀을 하지 않았을거예요.”

림지효의 안해는 오아의 대답이 사개가 맞지 않는데다 얼굴빛이 어색하고 또 옥천아의 말에 의하면 요즘 저쪽 정방에서는 도난사건이 있었는데 몇몇 시녀들이 서로 미루기만 할뿐 도무지 범인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속으로 혹시 이 아이가 아닐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이러는데 마침련화가 소선이며 몇명의 아낙네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림지효의 마누라에게 말했다.

“할머니, 이 엘 좀 잘 조사해보세요. 요즘 웬 일인지 이 앤 남의 눈치만 할끔할끔 살피면서 이안을 자꾸 기웃거리며 다니는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자 소선이 옆에서 동을 달았다.

“어저께 옥천언니가 그러는데 마님방의 옆방에 있는 껌을 열어보니까 그안에 있던 잔물건들이 수태 없어졌더라고요. 희봉아씨께서 평아가씨를 시켜 옥천언니한테 매괴즙을 좀 얻으러 보냈더니 그것을 꺼내다가 매괴즙 한병이 없어진것을 보고 알게 됐대요. 만일 매괴즙을 찾지 않았더라면 상기도 모르고있을뻔했지요 뭐.”

소선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련화가 그 말을 받았다.

“난 처음 듣는 말이지만 오늘 매괴즙병을 보기는 한개 보았어.”

그러지 않아도 림지효의 안해는 그 사건의 단서를 잡지 못해 날마다 희봉이가 보내온 평아의 닥달을 받고 있는터이라 지금 련화의 말을 듣자 눈이 편뜩 띄여졌다.

“그걸 어디서 봤니?”

“이 애 어머니 주방에서요.”

그 대답을 듣기가 무섭게 림지효의 안해는 초롱불을 켜달게 하더니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매괴즙을 뒤지러 가려고 했다.

그통에 질겁을 한 오아는 곧이곧대로 실토했다.

“그건 보옥도련님방에 있는 방관이 준거예요.”

“방관이건 무슨 관이건 내가 알게 뭐야. 지금 증거가 나졌으니 난 그걸 고해바치면 그만이야. 발명을 하겠거든 상전들앞에 가서나 해라.”

림지효의 안해는 이런 말을 뇌까리며 주방으로 달려갔다. 련화의 안내로 매괴즙병을 꺼내든 그는 또 무슨 다른 물건은 훑쳐둔게 없나 해서 여기저기를 더 뒤져보다가 복령분 한봉지를 찾아냈다. 그는 그 런것들을 한데 싸가지고 오아를 끌고 리환과 탐춘을 찾아갔다.

그때 리환은 아들 가란의 병때문에 일을 볼 겨를이 없었으므로 탐춘을 찾아가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때는 탐춘도 이내 자기 방으로 돌아갔으므로 림지효의 안해가 그의 처소를 찾아가니 시녀들은 안뜰에서 소풍을 하고있고 탐춘은 안에서 목욕을 하고있는중이었다.

시서를 시켜 용건을 전하게 했더니 시서는 한참만에 나와서 말을 전했다.

“아가씨께선 알았노라고 하시면서 평아언니를 찾아 둘째아가씨께 말씀을 드리라셨어요.”

림지효의 안해는 다시 일동을 데리고 희봉의 거처로 갔다. 먼저

평아를 찾아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더니 평아는 그것을 희봉에게 아뢰었다.

막 자리에 누워서 자려던 희봉은 그 소리를 듣고 분부를 내렸다.

“그 어미넌은 곤장 사십개를 쳐서 다시는 중문안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내쫓고 오아넌은 곤장 사십대를 쳐서 시골로 내려보내여 팔아 버리든지 누구한테 주어버리든지 하게 해.”

평아가 그 말을 림지효의 안해에게 전하자 오아는 기겁을 해서 와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평아앞에 꿇어엎드려 방관이 그것을 가져다 주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난 평아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건 어렵지 않아. 래일 방관이한테 물어보면 참말인지 거짓말 인지 판명이 될테니까. 하지만 이 복령분만은 요전날 보내온건데 로마님과 마님께서 돌아오시기전에는 절대로 손을 댈수 없는 물건이란 말야. 그런걸 담이 크게 흠쳐냈으니 되겠어?”

그러자 오아는 외삼촌으로부터 그걸 얻게 된 사연을 얼른 밝혔다.

그 말에 평아는 깔깔 소리내여 웃었다.

“그렇다면 넌 아무런 죄도 없는데 애매하게 혐의를 받고있단 말 이지? 그렇지만 지금은 날이 저문데다 아씨께서 방금 약을 잡수시고 쉬시려는 참이니 요만한 일로 더 성가시게 굴순 없어.”

그리고는 다시 림지효의 마누라를 보고 분부했다.

“오늘밤엔 우선 이 엘 당직서는 사람들에게 넘겨서 하루밤 지키고있도록 해요. 래일 날이 밝으면 내가 다시 아씨한테 말씀을 드려서 적당히 처리하도록 할테니까.”

림지효의 안해는 그 지시를 어길수가 없어서 오아를 데리고 나와 숙직서는 아낙네들에게 맡겨놓고는 돌아가버렸다.

연금을 당한 오아는 한발자국도 마음대로 움직일수가 없게 되었다.

아낙네들은 오아를 두고 자기나름의 말을 했다.

“그런 고약한 짓을 해서야 쓰겠니?” 하고 타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경을 제대로 서는것만도 수월찮은 일인데 도적년까지 데려다가 지키라고 하니 이러다가 미쳐 살피지 못하는 사이에 자살을 하든지 도망을 쳐버리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그 잘못을 뒤집어쓰

게 될게 아녀?”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었다.

그밖에 또 평소에 류서방댁과 사이가 좋지 못하던 녀인들은 속이 썩어원해하며 오아를 조롱하고 웃어댔다.

오아는 억울하고 분하기 짝이 없었지만 어데다 하소연해볼곳조차 없었다. 워낙 타고난 기질이 잔약하고 아직 병마저 채 낫지 않은 몸이었던만 차물 한모금 얻어마실수 없고 배고누울 베개 하나 없이 온 밤을 꼬박 눈물로 새우게 되었다.

한편 오아의 모녀와 사이가 좋지 못했던 사람들은 시급히 그들 모녀를 쫓아내야지 다음 날까지 미루었다가 일이 뒤집히는 날엔 랑패라싶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 남몰래 평아를 찾아와서는 갓은 수단을 다 썼다. 코밑진상을 하는가 하면 평아를 추어 올리기도 하고 또 오아어미의 험구를 늘어놓기도 했다.

평아는 일일이 종도록 대답을 하여 그들을 돌려보내고나서 습인을 찾아 조용히 물었다.

“정말 방관이가 오아한테 매괴즙을 주었어?”

“매괴즙은 틀림없이 방관에게 주었는데 그 애가 그걸 누구한테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습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곧 방관을 불러다 물어보았다.

방관은 습인의 물음에 깜짝 놀라며 자기가 오아에게 주었노라고 했다. 그리고는 급히 보옥을 찾아가 그 일을 알리었다.

그 말을 듣자 보옥이도 자못 놀라와했다.

“매괴즙은 그렇다 하겠지만 복령분을 캐러들게 되면 그 앤 영낙없이 그걸 실토할거고 그러면 그 애 외삼촌이 당직을 서다가 손에 넣은것이 탄로될테니 그 애의 외삼촌까지 죄명을 쓰게 되잖아?”

그래서 보옥은 급히 평아를 불러 의논을 했다.

“매괴즙에 관한 일은 아귀가 지어졌다 하더라도 이 복령분에 관한것이야 잘못된게 아닌가 말야. 그러니 평아누나가 좀 덮어줘야겠어. 그것도 방관이가 주었다고 말야.”

평아는 소리없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어보였다.

“그렇지만 그 앤 벌써 어제밤에 자기의 외삼촌한테서 얻었노라고 사람들앞에서 실토해버린걸요. 그러니 어떻게 다시 도련님이 주신것이라고 하겠어요? 게다가 저쪽의 도난사건은 여태껏 단서가 잡히지 않고있단 말예요. 이런 판에 지금 증거물이 나온 사람을 그냥 놔주고

또 다른 사람을 붙들려 한다면 아무도 자진해서 잘못을 자백하려 하지 않을거고 다른 사람들도 믿으려 하지 않을거란 말씀이예요.”

이때 청문이가 달려와 입바른 소리를 했다.

“마님의 매괴죽은 두말할것도 없이 채운이가 훔쳐다 환도련님을 준게 뻔해요. 그런걸 왜 남의 다리를 굶으면서 이 소란을 피우는거예요?”

평아는 웃으면서 그 말을 받았다.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그렇지만 옥천아는 화가 나서 울고있잖아? 채운이한테 가만히 물어보았을 때 그 애가 자인만 했더라면 옥천아도 더 말을 내지 않았을게고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었을거란 말야.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좋도록 처리해주었을거구. 그런데 밭살스럽게도 채운이년은 기어코 똑 잡아떼면서 도리어 옥천아를 생먹으려 들지 않아? 옥천아가 훔쳐냈다면서 말야. 그래서 그 애들 둘이 먼저 옥신각신 싸우다보니 결국은 온 집에서 다 알게 됐지 뭐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못 들은체하고 가만히 있을수 있겠어? 조사를 해보는 수 밖에 없지. 도적이 먼저 매를 든다는 말을 모르지야 않지만 증거물을 쥐지 못한 이상 어떻게 그 앨 보고 말을 하겠냐 말야.”

옆에서 듣고있던 보옥이 자기나름의 궁리를 내놓았다.

“그럼 그것도 내가 떠맡지. 내가 그 애들을 돌려주기 위해서 어머니의 물건을 훔쳐냈다고 말야. 그렇게 하면 이 두가지 사건을 다 얼렁뚱땅 넘겨버릴게 아니야?”

그러자 습인이 걱정을 했다.

“그러는것도 역시 음덕을 쌓는 일이긴 해요. 남의 루명을 벗겨주는거니까. 하지만 마님께서 들으시게 되면 또 도련님을 철딱서니없는 장난을 하신다고 꾸중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 말에 평아가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그것쫘미야 별로 개의할것도 없는 일이겠지만 실은 그런게 아니란 말야. 지금이라도 작은집 조씨의 방에서 장품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아. 그렇지만 꼭 한 사람의 체면이 깎이게 될가봐 그게 두려워. 다른 사람들은 다 상관없지만 그 사람만은 속이 상해할테니 그분의 처지가 가없단 말야. 난 쥐를 잡기 위해 옥병을 깨뜨리진 못하겠어.”

그리고는 손가락 셋을 쳐들어보였다.

습인이들은 그것이 곧 탐춘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알아차렸다.